건강상식

제9장 보건의료 행정

保健・環境

■ 權 彝 赫 (中央宗親會 名譽會長·醫學博士)

제15장 세계보건기구

6. WHO 서태평양지역

이에 앞서 WHO 는 1947년 12월 말 현재로 2건의 장학금을 우리나라에 배 당하여 2명의 전문가가 미국에 파견되 기도 하였다. 북한은 1973년 5월 19일 가 입하여 남동아시아지역(South-east Asia Region) 소속으로 되어 있다.

뉴질랜드는 1946년 12월 10일, 호주는 1948년 2월 2일, 필리핀은 1948년 7월 9 일, 일본은 1951년 5월 16일 각각 가입하

중국은 최초의 회원국으로서 제1차 총회에는 참석했지만 내전 때문에 제 2차, 제3차 회의에는 참석하지 못했다. 1951년 9월 제2차 서태평양지역위원회 (Western Pacific Regional Committee) 부터 1971년 제22차 위원회까지는 대만 이 참석했다. 그러던 차에 제25차 세계 보건회의에서 1972년 5월 10일부터는 중국인민공화국이 중국을 대표한다는 선포가 있었다. 서태평양지역위원회도 1973년 제24차 위원회부터는 중국인민 공화국이 중국을 대표했다.

영국에 속해 있던 홍콩은 1996년 제47 차 위원회까지 '홍콩'이라는 명칭으로 참석했지만 1997년부터는 '중국 홍콩 (Hongkong, China)'이라는 명칭으로 참가하게 되었다. 1557년부터 포르투갈 에 차지(借地)되었던 마카오(Macao)는 1999년 12월 20일 중국에 반환되었다.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은 1950년 5월 17일 WHO에 가입하였다.

Board)에서 중국과 필리핀은 각각 서 태평양지역 사무처를 상하이(上海)와 마닐라에 설치할 것을 제의했고, 서울 과 싱가포르가 후보지로 거명되기도 했 지만 결국 마닐라로 낙착되었다. 이리 하여 1951년 8월 서태평양지역 사무처 가 마닐라에 설치되었다.

2)지역위원회

제4차 세계보건총회는 대다수 회원 이 무엇인가를 강조하고 있다. 국의 요청에 따라 지역위원회(Regional Committee)를 열기로 의결하였다. 제1 차 지역위원회가 제4차 총회가 진행 중 이던 1951년 5월 18일 제네바에서 열렸 단. 홍콩에 임시사무처가 미련된 8개월 후였다. 호주, 캄보디아, 일본, 라오스, 다고 지적하고 있다. 뉴질랜드, 필리핀, 한국, 베트남 대표가 모였고 서태평양 지역 내에 있는 영토 보건정책의 골격을 마련해 주었으며, 에 책임이 있는 나라인 프랑스, 네덜란 드, 포르투갈, 영국 대표도 참석했다.

에 설치한다는 것과 초대 지역사무처장 으로 황(I.C.Fang) 박사로 할 것을 실 행이사회에 건의했다.

에 걸쳐 수행했고, 그 뒤를 이은 디(F. 평가목적으로 사용된다. J. Dy) 박사는 발전을 지속시켰고 1978 년에는 '모든 사람에게 건강을(Global 양 지역 내의 많은 나라가 보건정책을 Starategy for Health for All)'이라는 수립하고 실천하는 데 활용해 왔다. 중 세계적 전략을 수립하기에 이르렀다. 국의 2010 장기보건계획, 싱가포르의 1978년 9월 구소련 알마타(Alma-Ata) 에서 1차 보건의료회의(Conference on Primary Health Care)가 개최되었고, 1949년 5월 모든 사람에게 건강을 주



기 위한 세계 적 전략(Global Strategy for Health for All) 이 시작된 일은 널리 알려져 있 는 바이다.

서태평양지

역에서는 알마타회의 전에 이미 1차 보 건의료사업이 어떤 형태로서든 실시되 어 왔으며, 대표적인 것으로는 중국의 '맨발의 의사(barefoot doctor)'를 들 수 있다. 1975년 지역위원회 중국 대표 는 중국에는 130만 명이 넘는 '맨발의 의사'와 360만 명이 넘는 보건 일꾼 및

사모아에서는 300여의 부이회가 보건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등 많은 나라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1차 보건의 료 사업이 진행되었다. '모든 사람에게 건강을(Health for All)'과 1차 보건의 료는 별개의 것이 아니다. 「알마타선언 문」도 '2000년까지 모든 사람에게 건강 을'이라는 조항을 내세웠다.

조산원이 있다고 보고했다.

나카지마(中嶋 宏) 박사는 1979년 7 월 1일 5년 임기의 지역사무처장에 취 임했고 1984년 7월 1일 연임하였다.

한상태(韓相泰) 박사는 1989년 2월 1 일 제4대 지역사무처장으로 취임했다. 한 박사는 재선되어 1994년 2월 1일 재 차 처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10년간 사 무처장으로 근무하면서 눈부신 업적을

한 박사의 업적 가운데 하나는 「건 강의 새로운 지평선(New horizons in 1948년 7월 실행이사회(Executive Health)」이다. 1994년 이 제목으로 간행 된 정책문서는 서태평양지역에서 '모 든 사람에게 건강을(Health for All)'이 라는 표어를 실천하는 데 새로운 계기 를 마련하였다. '건강의 새로운 지평선' 은 개개인의 삶의 각 단계가 필요로 하 는 건강수요는 각가 다를 수밖에 없다 는 기본 테두리 안에서 적극적 건강을 달성하기 위해 개인이 할 수 있는 역할

> 「건강의 새로운 지평선」은 건강의 본 질을 삶의 준비, 삶의 보호, 삶의 질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 과거 에는 질병 중심 접근법이 일반적이었지 만 인간 중심 접근법으로 바뀌어야 한

「건강의 새 지평선」은 서태평양지역 지역사무처는 각국이 건강의 새 지평 선의 목표를 향해 진행하고 있는 상황 이 회의에서는 지역사무 처를 마닐라 을 측정할 수 있도록 63개의 지표를 작 성하였다. 지표들은 배경지표(context indicator), 성취지표(performance indicator), 효과지표(impact indicator) 사무처장 황 박사는 5년 임기를 3차 의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효과지표는

'건강의 새 지평선' 개념은 서태평 건강생활양식계획(National Healthy Lifestyles Programme)과 녹색계획 (Green Plan) 등이 그 대표적 예이다.

〈다음호에 계속〉

이 시대 최고의 재테크수단 법원부동산경매

■ 月河 權 赫伯(좌윤공파36세, 한국부동산 경매학회 명예회장)

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해설)

차. 임대차의 존속기간과 갱신

보통 상가건물임대차는 계약기간을 1년 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겨우 수익 을 올릴 만하면 만기가 돌아와서 그동안 열심히 터를 닦아온 고생이 헛수고가 됨은 물론 남 좋은 일을 한 꼴이 된다. 그러나 실 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5년 동안 비워주지 않고 영업을 계속할 수 있고 계 약갱신규정도 법률적 뒷받침이 확실히 되 어 있으므로 이를 나의 권리로 잘 활용하 면 매우 유익하다.

(1) 임대차 기간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1년 미만 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 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

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임대 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 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2) 계약갱신 요구권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 갱신 요구에 대하여 상당한 사유 없이 이 를 거절하지 못한다. 이 권리는 최초의 임 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 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가)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나)임차인이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

법으로 임차한 경우

(다)쌍방 합의 하에 임대인이 임차인에 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라)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대한 경우 (마)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바)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

(사)임대인이 목적건물의 전부 또는 대 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목적 건물의 점유회복이 필요한 경우

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

(아)기타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 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존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법정갱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 월까지 사이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 의 통지 또는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 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고 그 기간을 정하지 않는 임대차는 그 기간을 1 년으로 보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고 를 할 수 있는데 임대인이 해지통고를 받 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

〈다음 호에 계속〉

전화: 010-2280-9267 권 혁 백

남성붙임 임상치료 선구자



남성불임 및 치료

지난 10월 영국의 의학자가 불이치료의 길을 열었다고 노벨의학상을 '스웨덴 노벨 위원회'로부터 받았다. 2010년 10월 5일 영 국의 케임브리지 대학 로버트 에드워즈 교 수에게 불임 치료공이 크다고 노벨 의학상 을 수여한 것이다. 30년간 300만 명 이상 시 험관 아이가 태어나게 하였다는 것이다. 주 로 여성의 난관이나, 난자 이상으로 불임이 된것에 대한 문제를 다룬 연구인 것 같다. 우리나라 추세로 남녀 불임 비율을 대충

살펴본다면 여성이 60% 남성이 40%라고 추정을 한다. 그러나 남성 불임이 점점 늘 고 있다는 것이다.

로버트 에드워즈 교수는 즉 남성 불임에 대한 학설이 별로 없어 아쉬움을 느끼게

본인이 한의학 40년을 임상하면서 불임 에 대한 30대 젊은이 몇 사람이 병원진단을 받았는데 정자 정충의 이상으로 임신을 하 기 희박하다고 하였다.

(불임증) 그주에 본원에서 불임 치료를 시도한 사람들은 아이를 출산하였다. 남성 불임증에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으나 3가 지로 우선 대별 하였다.

신체적 결함 결손(고환) 즉 결함도 크게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우리 한방에서

지금까지 태

이상 남자아이만

이 태어났으므로

권영훈원장

특이하다 하겠다.

남성의 불임원인을 들자면 대충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기본 건강 즉, 기혈(氣血)부족으로 정 충이 아닌 수액만 흐를 때 임신이 될 수 없 는 것이다. 건강한 1000개 이상 강한 정충 이라야 임신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2. 본인도 잘 모르게 염증 즉, 균에 의한 (임균) 감염으로 정충이 충실하지 못하고 소실되어 숫자가 희박할 때.

3. 화공계통, 즉 페인트 및 화공약품 등 을 오랫동안 접하였을 시, 또는 전자, 전파 를 많이 장시간 받았을 때 또는 환경 호르

한의학에서는 남성불임증의 원인으로 지루, 조루, 조설, 기쇠 등 또 조절 할 수 없 는 급한 '사'와 '정'을 지목한다.

정자의 활동력이 강력하여야 임신할 수 있는 조건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원인은 구조적 질환이나 저능 또 기형과는 무관하여 한의학적 방법으로 치 료가 가능한 것이다. 치료에 있어 한방에 자윤(滋潤)지제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남 성의 신양기(腎陽氣)를 돕고 심신의 허약 함을 보하여 정혈(精血)을 충만시키는 것 이다. 신기(腎氣)의 기흘 회복시키면 자연 스레 정자의 활동성이 강화되어 남성의 발 기력과 지속력이 강해지므로 임신을 하게

앞에서 재삼 강조하였는데 정(精)과 핵 (核)을 충문하게 함으로 1,000~1억5천개의 건강한 정충이 활력을 찾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2 02-417-4001

道山學叢書

十七世紀의 政治社會的 狀況과 정치사회적

李佑成 (성균관대명예교수)

〈지난호에 이어〉

論道山之學

그 목적이 있다.

번하여 계파 간 서로 배척하고 백성들의 생활이 '覇道'를 행하는 것과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그리 고 만일 國危民亂의 위태로운 상황을 개선시키려 한다면 반드시 군주 및 권력을 행사하는 통치계층 上行下效, 修齊治平의 목적을 이를수 있다고 여겼 다. 세 번째는 仁義로써 나라를 세우고 民으르써 나아가 왕도정치를 행하는데 중요한 것을 仁과 義 다.

는 것이라 여겼다.그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들이 제창한 仁義立國의 기준으로 보면 한 명 권득기・권시 부자가 王覇之辨을 중시한 까닭은 이라도 죄짓지 않은자를 죽이거나 하나라도 義가 나라 도리어 백성을 잔혹하게 학대하면 마침내 "宮逼 아닌 것을 행하는 것은 모두 仁과 義를해치는 것 그들은 국가가 위급하고 백성의 생활이 곤긍한 이기 때문에 따라서 그들은 폭군의 잔악한 행위를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국세가 쇠약하고 당쟁이 빈 강력히 배척하였다. 아울러 또한 군주에게 "思爲 獨夫則萬無保位之理"라고 경계하여 말하기도 했 극히 곤란한 점 등에 대하여 이 모두가 집정자가 다. 이로 인해 그들은 공자의 '湯·武革命'에 대한 평가에찬성하고 "湯·武革命"은 "應天順人者"라 하 고 "人君無道之極, 家叛親離, 則是天命已絶而爲獨 夫故也.(『晚悔集』卷2)"라고 여겼다. 또한 앞서 밝 였다. 그는 백성이 난을 일으키고 왕조가 교체되는 것 이 왕도정치를행하고 정치를 개혁해야만 비로소 힌 바와 같이 그들은 왕도를 행하지 아니하고 仁 義를 짓밟는 "殘賊獨夫"에 대해 '湯·武革命'의 방 법을 취해 조정의 정치를 개혁하 "應天順人"해야 의 부패, 백성이 명을 감당해 내지 못하는데 그 이유가 나라의 근본으로 삼는다권득기 ·권시 부자는 더 한다는 관점을 내세웠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

군과 신이 모두 백성들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것 이라면 군주는 백성・민중의 생계를 위해 힘을 다해 '養民' '憂民'의 일을 행하여야 하며 군주는 百宮을 두 어 그 일을 행한다는 것이다. 백성은 '酬其勞'하기 위 해 군주로 하여금 '萬乘之富를 얻어 누리게 하고 백관 으로 하여금 역시 그 禄俸을 받게 한다. 여기에서는 백 성이 나라의 근본일 뿐만 아니라 또한 백성을 주인으 로 삼아 封建 윤리강령을 혁파하고 민주계몽의 색채까 지도 갖춘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권득기는 군신이 이 미 그 보수를 받았으니 마땅히 그 직분을 다해야 하며 그 지위를 차지하고서도 다만 사치향락만을 도모해서 로써 나라를 세우고 民으로써 나라의 근본으로 삼 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그는 비평해 다음과 같 이 말하였다.

권득기는 이어 군왕이 직분을 다하지 않을 뿐만 아 民反"하게 되어 최후에는 스스로 폭군으로 전략하게 되니 이는 또한 사물발전의 필연적 추세라고 지적했 다. 그는 말하기를 "君不養民而虐之. 則民相聚而叛之. 雖非道義之當然, 亦理勢之所必至也.(同上書, 卷4)"라 하였다. 때문에 그는 이전 史論의 "晋室淸談致五胡之 亂""宋以王荊公之學馴致靖康之亂" 등의 관점을 바로 잡고 "此皆先儒傳會之說(『晚悔集·僭疑』卷4)"이라 하 을 야기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그 필연적인 이 치가 있을 것이니 바로 그것은 임금의 몽매함과 조정 있다고 여겼다.

〈다음호에 계속〉

稅務士 權 九 文 事務所

- 양도, 상속, 증여세 상담
-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 개인, 법인의 기장, 고문
- 기타 세무상담 일체환영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473-14 보보스텔 208호 TEL:2066-9741~4 / H.P: 011-307-2443 FAX: 2066-9745

마포종친회 5월 월례회 안내

회원님 가정에 화목·건강·행운이 함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마포종친회 「5월 월례회」(정기)를 아래와 같이 개최코져 하오니 많이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2011년 5월 26일(목) 오후 7시 (매월 4번째주 목요일)
- 장소: 우가촌(가마솥설렁탕): 02)702-5047, 011-358-2840
- 오시는길: 지하철 5호선 공덕역 ⑤번출구

지하철 6호선 공덕역 ⑥번출구→공덕오거리→르네상스타워(옆)→공덕지구대(파출소)뒤→ 우가촌(설렁탕)

■ 연 락 처 : 회장 권승구 : 02)718-8437, 017-271-8437 무 권일부 : 02)335-1085, 010-3796-6980

2011년 5월 1일

안동권씨 마포종친회 회장 권 승구